

연봉 자랑하던 네이버-카카오, 인건비 부담에 허리띠 조인다

몇 년간 급여 인상... 실적에 부담
카카오, 올 채용 두 자릿수로 축소
네이버, 올해 30% 이상 고용 줄여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올해 공채 인력 축소에 나선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몇 년간 급여를 큰 폭으로 인상한 바 있는데, 급증한 인건비가 실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개발자 신입 공채 규모를 지난해 세 자릿수를 채용한 데 반해 올해는 이를 두 자릿수로 축소해 신입 직원 채용을 큰 폭으로 줄였다. 또 네이버는 지난해 1100명을 신규로 채용했으나 올해는 채용인원을 30%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채용했던 공채를 올해는 상반기 채용에 그치고 하반기 공채는 진행하지 않기로 해 연 1회 채용에 나선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건비는 2분기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1.7%와 무려 42%가 증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분기 인건비로 각각 4337억과 4262억원을 지출했다. 상반기에만도 임



한 응시자가 AI 면접 시스템을 통해 AI 면접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마이다스아이티

직원의 연봉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10%와 15%를 인상해 큰 폭의 인건비 증가가 있었다. 게다가 신규 법인의 연결 편입을 통해 직원 수가 증가한 것도 인건비 상승의 영향이 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세 자릿수 채용에 나섰지만 올해는 보수적 채용에 나서 지난 1일 100명 미만의 두자릿수 '신입 개발자 공채'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신입 개발자 공채 축소는 효율적인 인력 및 인건비

운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투자 및 우수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채는 계속 진행한다. 이미 상반기에 세자릿수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전체 급여 총액은 2018년 4203억원에서 2020년 7112억원으로 급상승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급여가 3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급여 총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카카오는

상반기에만 6123억원을 인건비로 지급해 인건비 1조원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력 수를 보면 카카오 본사의 인력은 5년 사이 약 40%가 늘었고 계열사 인원 만도 3배 이상 증가했다. 본사 인력은 2018년 2531명에서 소폭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3000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3398명에 이르렀다. 이 기간 중 계열사 근무자는 4744명에서 1만 5736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카카오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특히 상장이 성공함에 따라 주식 보상이 늘어난 것도 회사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십억~수백억원의 주식 보상 계약도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올해 2월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 공동체'를 통해 1년에 약 2000명씩을 채용해 5년간 1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I(인공지능) 캠퍼스 등을 통해 2024년부터 3년간 매년 2000명씩을 모집해 총 6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타트

업 기업 투자와 고용지원을 통해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네이버도 지난해 1100명이나 신규로 채용했지만 올해는 30% 이상 고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며, 지난해에는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진행하던 공개채용을 하반기 채용은 진행하지 않는다.

네이버 관계자는 "올해 6월에 개발자 공개채용 공고를 내 이들에 대한 최종 입사가 10월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뽑는 사람들이 하반기에 입사하게 된다"며 "개발자가 계속 필요한 건 맞다.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채용을 좀 더 많이 했다면 올해는 채용 규모 자체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분기 실적 발표 때 "지난해 인건비가 많이 증가해 올해는 작년보다 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채용이라는 것이 연중이 되기 때문에 감속한다고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채용 감소의 효과는 내년 2분기부터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한화솔루션, 태양광 키운다... 7617억 투자 '모빌리티와 상생' 카카오, 100억 기금 조성

고출력 태양광 제품 생산기반 확보
GS에너지와 EVA 생산 회사 설립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맞춰 태양광 소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 7617억원을 투자한다고 7일 밝혔다.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맞춰 태양광 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고출력의 태양광 핵심 제품 생산기반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GS에너지와 손잡고 태양광 모듈용 시트의 핵심 소재인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를 생산하는 합작회사를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설립한다.

양사가 총 59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하는 에이치앤지케미칼(H&G Chemical)은 오는 2025년 9월부터 연산 30만톤을 목표로 EVA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 첨단소재 부문 등 EVA시트를 생산하는 글로벌 태양광 부품 업체들은 이 소재를 활용해 제품을 공급한다. EVA시트는 태양광 셀의 성능을 유지하는 핵심 자재다. 첨단소재 부문도 이에 맞춰 충북 음성에 약 417억원을 투자해 EVA시트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에이치앤지케미칼은 한화솔루션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소재 생산 역량과 GS에너지 자회사인 GS칼텍스의 경쟁력 있는 원료를 활용해 단기간에 글로벌 톱-티어 EVA 제조기업으로 성장하겠

다는 목표다. 연간 440만톤 규모(작년 기준)의 글로벌 EVA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른 태양광용 시트 수요 증가로 연평균 5.6%씩 성장할 전망이다.

이번 합작사업으로 한화솔루션을 포함한 한화그룹의 EVA 생산능력은 총 92만톤으로 늘어나 미국 엑스 모빌(79만톤)을 제치고 글로벌 1위의 EVA 생산업체로 도약하게 된다.

큐셀 부문은 충북 진천공장에 고효율의 탑론 기반 셀과 대형 웨이퍼(M10)를 활용한 모듈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데 약 1300억원을 투입한다. 탑론은 셀에 얇은 산화막을 삽입, 기존보다 발전 효율을 약 1%P(포인트) 높인 고효율 제품이다.

/양성준 기자 ysw@

플랫폼 종사자와 협력

카카오가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이사장 흥은택)와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근선)는 '모빌리티 종사자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에 22억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희망브리지에서 진행된 기금 전달식에는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 카카오 육심나 ESG부사장, 카카오임팩트 정연주 팀장, 카카오모빌리티 김수 정책협력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5년간 총 3,0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활용해 사회와 함께



(왼쪽부터) 카카오모빌리티 김수 정책협력실장,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 카카오 육심나 ESG 부사장.

/카카오

하는 지속 가능 성장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모빌리티 종사자 상생 기금은 본 지속 가능 성장 방안의 일환으로, 카카오는 5년간 총 100억원을 조성해 질병이나 사고를 겪은 택시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를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KT-코오롱FnC, 패션 디지털 전환 맞손

ICT 분야 실증 사업 추진

KT가 코오롱FnC가 디지털전환(DX) 및 ESG 신규 사업 협력을 위해 손을 잡는다. 이를 통해 양사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분야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KT와 코오롱FnC는 이번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AIDX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실증사업 추진 및 개방형 패션 플랫폼 사업 협력 ▲제조DX 및 AI마케팅 협력 ▲AI컨택센터, 스마트팩토리 물류 등의 공동 사업 모델 발굴 ▲ESG 패션 사업 파트너로 지속 가능한 패션



6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 코오롱FnC 본사 사옥에서 진행된 MOU 행사에서 KT 신수정 Enterprise 부문장(왼쪽)과 코오롱FnC 유석진 대표이사가 MOU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KT

DX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T는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과 노하우 등 AIDX 및 ICT 역량을 제공한다.

/채윤정 기자

라인망가·이복재팬

8월 거래액 100억엔 돌파

네이버웹툰의 일본 계열사인 디지털 프론티어가 운영하는 라인망가와 이복재팬의 8월 합산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인 100억엔(약 970억원)을 돌파했다. 두 플랫폼의 서비스 합산 월간 거래액이 100억엔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인망가에서 8월에 진행한 여름 캠페인과 오리지널 웹툰이 인기를 끌며 거래액 상승세를 견인했다. 한국 오리지널 웹툰 '내 남편과 결혼해줘'(글·그림 성소작, LICO), '싸움독학'(글·그림 박태준, 김정현), '입학용병'(글·그림 Y C, 락현) 작품 등이 성과를 내며 높은 거래액을 기록했다.

/채윤정 기자

SKB, 협업툴 회사에 400만 달러 투자

스유테크놀로지스와 협력

SK브로드밴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인 스유테크놀로지스에 400만 달러를 투자해 B2B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SK브로드밴드는 글로벌 협업툴 회사인 스유테크놀로지스에 투자하고 국내 시장 총판 역할을 포함해 양사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협업툴 전문 회사인 스유테는 연동이나 호환이 쉽고 확장성이 뛰어나 널리 사용되고 있다.

회사명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스유테'

/채윤정 기자

은 확장성이 우수하고, 현재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협업툴인 '구글 워크스페이스', 'MS365'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인 ERP, CRM과도 연동이 가능하다.

스유테는 특히 협업툴 애그리게이터(Aggregator)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일일이 화면을 전환하면서 개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존의 협업툴과 달리 채팅, 업무관리, 목표관리 기능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문서관리, 영상회의, 캘린더 등을 마치 하나의 앱처럼 사용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몰입도를 높여준다.